

F1005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유리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6613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5.08.03
운용기간	2022.07.01 ~ 2022.09.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 채권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자산 총액 (A)	1,468	1,733	18.08
	부채 총액 (B)	1	1	22.31
	순자산총액 (C=A-B)	1,467	1,732	18.08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1,411	1,737	23.12
	기준가격 (E=C/D×1000)	1,039.82	997.23	-4.10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과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펀드는 글로벌증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글로벌증시는 중앙은행들의 고강도 인축에 높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연준은 3회 연속 75bp 금리인상을 결정하며 투자심리를 압박하였으나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둔화되자 인플레이션 속도조절 기대감에 급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8월 액션홀 미팅에서의 인축 전망 고수, 9월 FOMC에서의 점도표 상황 등 강화된 인축 전망이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를 가파르게 밀어올리며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중단에 유로화 급락하였고 연화 및 위안화 약세 등 강달러 환경 심화되며 신흥국 증시가 큰 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펀드는 독일 거래소 비중 확대 유지하며 차익실현 하였고, 중시 민감도가 높은 지수산출기업, 미국 대형거래소 비중은 재차 축소, 투자매력이 감소한 홍콩거래소 비중을 추가로 줄였습니다. 지속 성장의 기대되는 펙트리서치를 신규 편입하는 등 성과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 동 펀드는 재간접형펀드 내에서 환헤지를 하고 있으며,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59.67%의 헤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물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 헤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펀드내 설정/해지, 추가변동, 환율 변동 및 펀드 규모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10월 글로벌증시는 미국 연준의 고강도 인축의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실적과 정책이벤트 소화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전망됩니다.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고강도 인축의지가 실물경기 지프 둔화로 나타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투자심리 제약 요인이나 부진한 실적 전망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가이던스 행방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탄탄한 고용과 물가 지표가 인축 행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소비자물가의 둔화 정도와 고용지표 결과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제한적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하방 지지 요인입니다. 펀드는 글로벌 핵심 변수들의 행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어닝시즌을 맞이하여 개별종목 이수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달러 기조가 일부 완화되는 시그널이 관찰될 경우, 그동안 비중을 줄였던 신흥국거래소에 대해 저가 매수 기회를 탐색하여 안정적인 성과제고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4.10	-12.72	-13.99	-10.83

* 비교지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10.83	-6.11	2.81	1.93

* 비교지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121	-	-	-	-	-	-	-2	-123
당기	-	-	-	-46	-	-	-	-	-	1	-2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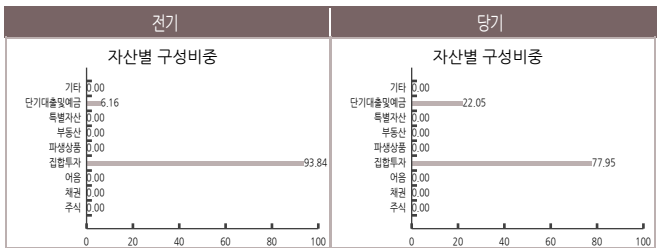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351	0	0	0	0	0	382	0	1,733
(1.00)	(0.00)	(0.00)	(0.00)	(77.95)	(0.00)	(0.00)	(0.00)	(0.00)	(0.00)	(22.05)	(0.00)	(100.00)
합계	0	0	0	1,351	0	0	0	0	0	382	0	1,733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유리글로벌거래소지1(주식)C1	77.95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22.05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유리글로벌거래소지1(주식)C1	주식형	917	1,351	대한민국	KRW	77.95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5-08-03	382	2.07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일계약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3	81	2,222,078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40	81	2,222,078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9	81	2,222,078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30	81	2,222,078	-	-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	--------

2019.01.25 ~ 현재
 2020.09.17 ~ 현재
 2019.01.24 ~ 현재
 2021.07.16 ~ 현재

최미영
 이대석
 김태현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	0	-
판매회사	2	0.15	2	0.1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2	0.16	2	0.16
기타비용	0	-	0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6377	0	0.6377
당기	0.6376	0	0.6376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 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factsheet)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자산구성현황, 투자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속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팀챌린지자산배분도형(유리자산운용)'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